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5.(일) 11:00 (지면) 2026. 11. 16.(월) 조간 배포 2026. 11. 13.(금) 오후

해양수산부,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대상자 공모한다

- 펀드 지원 기준 개선으로 선박 건조비 상승에 따른 선사의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6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4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는 노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해 왔으며, 선박 가격에 따라 건조비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으로 총 15년간 지원 자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9척과 연안 화물선 5척 등 총 14척의 건조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여객선 6척과 화물선 1척 등 총 7척이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새롭게 건조된 선박들은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을 돕고 연안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여객선과 생활 물자 등을 운송하는 화물선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선박 교체를 촉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물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선박 건조비 상승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대화 펀드의 지원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선박 가격이 60억 원 이하일 경우 건조비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 원 초과일 경우 3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되는 선박 가격을 2.5배 높여 150억 원 이하 선박은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선박은 50%, 300억 원 초과 선박은 3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내항여객·화물운송 사업자는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래된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과 안정적인 연안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사들의 선박 건조 부담을 덜고, 섬 주민의 이동과 연안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서기관	한정수 (051-773-57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 고 **2026년 제4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 사업 개요

○ (**목적**)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여 **연안해운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

○ (**법적근거**) 「해운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 「선박투자회사법」

○ (**조성기간 / 펀드규모**) '16~'30년 / 3,000억 원

○ (**지원대상 / 운영기관**) 내항여객·화물운송 사업자 / ㈜세계로선박금융

○ (**현황**) '16~'26년 펀드 2,490억 원 조성, 14척 선박 지원(7척 건조 완료)

* '16~'22년까지 1,990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8.17)에 따라 '24~'29년 출자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

○ (**주요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지원***

* 선박 대여회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 체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펀드 투자금 상환(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및 선박 확보

선가	펀드	금융기관	자부담
300억 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150억 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현재 운항 중인 지원 선박 현황

지원선박	선박명(선사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실버클라우드(한일고속)	제주-완도	카페리	19,700톤
2	퀸메리(씨월드고속훼리)	목포-제주	카페리	14,900톤
3	한일골드스텔라(한일고속)	제주-완도	카페리	19,700톤
4	퀸제누비아(씨월드고속훼리)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오션비스타제주(현성MCT)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코리아프라이드(고려고속훼리)	인천-백령	초쾌속선	1,300톤
7	KHOS STELLA(㈜KHOS)	부정기	화물선	958톤